

해수부,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방향 발표

- 북극항로 시대 대비... 동남권을 대한민국 미래성장 거점으로 육성
- 북극항로·첨단제조·해양금융·친환경에너지와 연계한 해양경제권 조성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5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북극항로 활성화와 전 세계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동남권을 세계적인 해양경제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방향'을 5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발표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제조·물류·에너지 산업 기반과 세계적인 항만 인프라를 갖춘 동남권을 대한민국 미래 해양경제를 이끌 핵심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부산은 국제 해양비즈니스 중심지로, 울산은 친환경 에너지 허브로, 경남은 항만물류·제조·인공지능(AI)이 결합된 글로벌 공급망 핵심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방향'을 마련하여 △북극항로를 선도하는 남부 해양수도권, △산업이 대도약하는 남부 해양수도권, △기업·사람·자본이 모이는 남부 해양수도권, △살기 좋은 남부 해양수도권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세부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2030년 이후 도래할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해 중장기적 국가 전략 차원에서 북극항로 활성화를 단계적으로 준비한다. 올해 하반기 부산~로테르담 구간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2030년 한-유럽 정기 항로 개설을 목표로 단계적인 운항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국적 내·쇄빙선대 확충, 극지 전문 인력 양성, 친환경 연료 공급 인프라 구축 및 국제협력 확대 등도 추진한다.

둘째, 산업이 대도약하는 남부 해양수도권 조성을 위해 진해신항 등 핵심 인프라와 연계하여 세계적인 물류 중심지로서 경쟁력을 키우고, 해양금융·

해사법률·친환경 병커링·선박 유지보수정비(MRO: Maintenance, Repair, Overhaul) 등 고부가가치 해양 서비스산업도 집중 육성한다. 또한, 자율운항 선박·친환경선박 등 미래 조선·해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항만·물류·제조산업의 인공지능 전환(AI Transformation)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핵심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기업·사람·자본이 모이는 남부 해양수도권을 만든다. 남부 해양수도권 전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계적인 해운·물류기업 유치, 해사국제상사법원 개원(2028.3), 대기업 협력을 통한 채용연계 계약학과 신설, 해양수산·이공계 전문인력 양성과 수요자 중심의 해양분야 창업생태계 구축을 통한 청년인재 유입 등 남부 해양수도권의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넷째, 살기 좋은 남부 해양수도권을 조성한다.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여 남부 해양수도권을 1시간 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남해안 관광자원을 잇는 해양레저관광벨트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은 바다에 있으며, 남부 해양수도권의 성공은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계획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양수산부는 글로벌 물류·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해양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북극항로추진본부 기획지원과	책임자	과장	고송주 (051-773-6310)
		담당자	서기관	김선하 (051-773-6311)